

## 건강 칼럼

## 간염, 바로 알면 예방이 보인다

**지**난 201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밟고 전염병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간경변·간암 등의 치명적 간질환으로 발전한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암은 74.2%가 만성 B형 간염, 8.0%가 C형 간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간염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바이러스는 A, B, C, D, E형으로 나뉘며 급성 및 만성 간염을 야기하고, 심한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간염은 A, B, C형이다.

**▲A형 간염**  
A형 간염은 흔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 환자가 늘거나, 잡단 발병이 생기기도 한다. 정부 통계를 보면 A형 간염은 2009년에 1만 500여 건이 발생해 이듬해인 2010년에 1군 간염병으로 지정됐다.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물 속에 들어오면 평균 4주 정도의 잡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전신피로감이나 근육통



최영득  
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의원장

이 생기며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거나 감기증상이나 위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그 후 소변 색깔이 풀무처럼 진해지면서 눈 흰자위에 노란 흥터를 보이게 된다.

A형 간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급성 간염 양상을 보이며, 적절한 영양 섭취와 안정을 취하는 것 외에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개인위생과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질병 관리법이다.

**▲B형 간염**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염으로, 전체 인구의 5~8%가 현재 감염된 상태이며, 그 중 열증 환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화된 환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아기에서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경우 80%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발전한다.

현재는 만성 B형 간염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면역글로불린 등을 접종으로써 대부분 예방이 가능해졌다.

B형 간염은 성인, 어린이 관계없이

총 3회의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전파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시 알려진 바가 없다.

평생 B형 간염 환자와 생활한 배우자도 전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 등에 간염보균자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접촉하는 이들이 간염환자가 있어서 이미 면역이 되어있다면 더욱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족 중에 간염보균자가 있다면 나머지 가족은 간염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된다.

**▲C형 간염**  
C형 간염은 간수치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간을 땁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에 치료항수록 완치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도내 고위 공직자들이 부지어 서서히 그려지는 서민의 형편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근래 식탁 물기가 비록 해 일반 물기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

바이러스는 혈액으로 감염이 된다.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에 수직감염, 성관계를 통한 전염, 수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에 손상된 피부나 절막이 노출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B형 간염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주의 깊은 적응이 필요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염 보균자의 혈액, 젖액, 터액, 질 분비물 등에서 검출되지만 주된 전염경로는 혈액이다. 따라서 오염된 혈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면도기, 손톱깎이, 칫솔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되며 이미 사용했던 주사바늘과 침 등을

## 사설

## 물가 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전북도는 물가 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장비구니 물가가 있따라 인상했고 또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다. 때가 때인이라 관심이 다른 쪽에 쏠려 있는데 이제 그 관심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쪽도 들어다보고 식탁물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이들이 어찌 조용하기에 하는 말이다.

폭염철 식탁 물가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가가 어平静다는 언급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것은 물가 오름세에 아예 신경을 끄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물가 억제를 말한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반응 보다는 보기에 좋다. 도내 고위 공직자들이 부지어 서서히 그려지는 서민의 형편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근래 식탁 물기가 비록 해 일반 물기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식탁 물가의 오름세가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줘 전제적으로 인플레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작금이다. 최근에는 폭염 때문에 품귀현

## 전북 탈출 가속화 현상을 고민해야

지금 청년층의 뮤진북 현상이 심각하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직류의 이 현실을 더럽게 보고 있는 게 궁금하다. 저번에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년층의 40%가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동안 전북도와 각 시군은 그에 대해서 무슨 노력은 했는지 알고 싶다. 현재 돌아가는 고용세를 보면 관심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나. 답답한 노릇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 할 말이 있다. 우리 지역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불명예스런 성적표를 갖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간수록 청년 고용의 열기가 식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데도 불구하고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이렇게 기이한데도 이렇게 끝내 보이는 웃자일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젊은이들의 날선 청년 실업률을 강너불구하고 해선 안 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정신차려야 한다. 공공기관들 역시나 그렇다. 다들 청년 고용에 동

참해야 한다. 인문사는 카메리를

## 독자제언

##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랜덤채팅 앱'

대부분 스마트폰어플이 기본으로 편의제작과 함께 청소년 성범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구직워로 모드는 사설파티룸을 나누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성매체 연결 창구가 되는 등 성범죄의 윤리성이 모니터링 랜덤채팅 앱 규제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수백개의 이런 앱 중 대부분이 어떤 인증절차도 없이 개인화 가능해 성별과 나이 등을 미리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음란 사진을 요구하거나 조작만남 등을 재인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랜덤채팅 앱에 청소년들은 무방비 노출되고 심지어 일부는 이를 몇 번이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성매체 경로 유형 중 모바일 채팅 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여실히 보여 진다. 또한 음란인 법률상 징벌처분에는 채팅 도중 당한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부를 문화하는 때를

이 늘었다. 청소년들의 채팅 앱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앱을 청소년 유해내용으로 지정해 아끼는데, 앱 자체가 성매체와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때문에 현재로선 청소년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

채팅 앱은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 후 범죄자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개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랜덤채팅 범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음란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자금으로서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행동일지라도 나중에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소정 /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가물어 쩍쩍 갈라진 들판



영국 기상청은 1961년 기록 후 가장 건조한 상태에서 분석적인 여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런던 남쪽 월트셔 부근의 바짝 마른 전원 풍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담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